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32)

어국불행(於國不幸)
나라에는 불행이다.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학고전연구소 소장)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은덕을 베푼다는 좋은 일로 여기는 것은 예나 오늘이나 같을 것이다. 그런데 송대(宋代)에 인종(仁宗)이 백성들 가운데 죄 지은 사람들의 서류를 심사하여 대대적으로 감면해 준 일이 있었다. 황제가 백성들에게 은전을 베푼 것이니까 당연히 잘 했다고 칭송을 해야 하겠지만 이때에 지제고(知制誥)의 벼슬을 가진 유창(劉敞)은 황제인 인종에게 ‘어국불행(於國不幸)’ 즉 나라에는 불행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 어찌된 논평일까? 유창의 설명을 들어 보면, 인종은 이미 반년 전에 백성들 가운데 죄지은 사람들에게 감형(減刑)을 조치하는 은전(恩典)을 내렸는데, 겨우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런 은전을 무슨 이유로 베푸는 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의 관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자주 은전을 베푼 일이 없었으니, 이번의 은전에는 명분(名分)이 없으며, 그래서 실익(實益)도 없다는 논리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황제가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은전을 베풀었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 조치를 취하기 며칠 전에 인종(仁宗)은 후궁(後宮)인 동씨(董氏)에게서 아홉 번째 딸을 얻었다. 딸을 얻은 기쁨에서 딸을 낳은 후궁을 귀인(貴人)으로 올려 주었다. 걸으로 감형과 황녀의 탄생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백성들은 황제가 황녀를 얻은 기쁨으로 감형조치를 했다고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황제의 공정한 정치가 아닌 것이다.

전통시대에는 비록 나라는 황제의 나라이고, 백성들도 황제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으나 황제가 마음대로 한들 무엇이 잘 못이나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일단 황제가 된다는 것은 천자(天子), 즉 하늘 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늘 님의 아들인 천자는 하늘 님이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늘 님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 마치 악인의 딸이나 선인의 밭에 똑 같이 비를 내리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하늘 님을 대신한 그 아들인 황제가 사사로운 감정을 갖고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잘 못하고 임금답지 않은 행동인 것이다.

맹자는 일찍이 ‘임금이 임금답지 않으면 이미 임금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이 바로 맹자의 혁명론(革命論)인 것이다. 맹자에게 폭군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걸·주(桀·紂)를 친 은(殷)의 탕(湯)과 주(周)의 무왕(武王)은 신하로써 군주를 친 것이니 하극상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질문은 받고, 한 마

디로 ‘나는 일부(一夫)인 걸·주를 쳤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대답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당시 걸(桀)은 하(夏)의 왕이고, 주(紂)는 은(殷)의 왕이었는데도 맹자는 이들이 이미 하늘의 뜻을 저버리고 사사로운 짓만 했으니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왕이 아니고 일부(一夫) 즉, 한 지아비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다. 걸·주가 아무리 제왕(帝王)의 옷을 걸치고 그 자리에 있지만 하는 것은 한 지아비의 짓을 했으니 탕(湯)이나 무왕(武王)이 그들을 쳤다는 것을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맹자의 논리대로 라면 인종이 황녀를 얻은 기쁨 때문에 그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여 감형령을 내렸으니, 걸으로는 은전을 베푼 것 같지만 전체 나라의 정치에서 본다면 이는 불행의 씨앗이라는 것이 유창의 논리였다.

유창의 말을 그대로 보자, “깨끗하게 정리되어 판결(判決)되어 경사(京師)에 있는 간한 죄수는 비록 은전(恩典)을 일시적으로 내보내지만 그러나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성스러운 분의 뜻이 황제의 딸이 탄생하여서일 것이고 그러므로 경사스런 혜택을 시행하는 것이지만 아마도 법령의 전적(典籍)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난해 윤달에 이미 감형(減刑)하여 줄여 주었는데 오히려 아직 반년이 되지 않아서 다시 이러한 은전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전(傳)하는 말을 보면, 백성들이 많이 요행스러운 일을 갖게 된다면 국가에는 불행이라고 하는데, 한 해에 두 번 사면을 하니 좋아 하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 시대에도 이미 이를 자세히 논단(論斷)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는 정치에 관하여 유창은 《춘추좌전(春秋左傳)》 선공(宣公)16년조에 기록된 “훌륭한 사람이 위에 있으면 나라에는 요행을 바라는 백성이 없어 지니 속담에 ‘백성들에게 요행이 많으면 국가에는 불행이다.’라고 하였는데 훌륭한 사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한 고전을 인용했다. 요행이 많은 세상은 바로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코로나로 1년 전인 지난해부터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다 그러하다. 코로나를 전후로 세상살이의 방향과 방법이 바뀔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다. 이럴 때 좋은 정부라면 전혀 새롭게 다가 올 미래를 예측하는 계획을 세워야 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 다음엔 어떤 업종이 사라지고 어떤 업종이 각

광을 받을 지를 짐작하고 국민들에게 이를 적절하게 안내하고 대처하는 정책을 실행했어야 했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국민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세우고 실천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사실 대통령이나 총리정도의 사람이라면 코로나문제는 질병청에 맡기고 전문가인 그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적극 지원하는 정도에서 책임을 지고, 좋은 정치가라면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 철학과 비전을 준비하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미래를 향하여 매진하자고 설득해야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않겠는가?

그런데, 한다는 것이 지난 총선 때 백성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돈을 풀더니, 이번에 서울과 부산에 선거가 있자 다시 돈을 풀겠다고 한다. 지난 선거 때 돈을 풀면서 1년이 지난 금년 초에도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질 것이니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계획하고 준비하였다면 이번 조치는 훌륭한 조치이다. 그러나 과문(寡聞)인지 모르지만 지난 4월에 1년 뒤에도 자영업자들이 어려울 것이니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했던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없다.

지난 1년 사이에 예상치 못했던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에 성추문사태로 자리에서 물러나 예상치 못하게 보궐선거를 하게 되었고, 재난 지원금이라는 것도 갑작스럽게 준비해야 한다면서 당정 간에 불협(不協)이 있었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그러하니 이번 재난 지원금은 선거용이라는 말을 듣기에 충분하다. 인종이 딸을 낳았다고 감형 조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걸으로야 어려운 자영업자 등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누가 보아도 선거용 돈 풀기이다. 현재 권력을 쥔 사람들이 무슨 말을 가지고 돈을 풀더라도 유권자들 가운데 그것이 말 그대로 정부의 선정(善政)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주는 거니 받고 아무 말도 안하겠지만 속으로야 이 돈으로 내 표를 구걸하겠다는 거로구나 생각할 것이다.

만약에 정말로 1년 전에 이미 코로나 사태는 1년이 지나가도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1년 뒤인 금년 3월에도 자영업자들을 돕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면 그동안 철저히 조사도 했을 것이다. 명확한 기준도 세웠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도 준비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는 어느 하나 준비된 것이 없었다. 그저 선거가 다가왔으니 돈이라도 풀어서 인심을 달래 보려 한 것 같다. 그렇다면 국민이란 아무 생각도 없는 개돼지로 아는 것이다. 분개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돈을 주니, 때로는 요행으로 받아들이는 받는 사람이 있어서 당장은 좋아라고 할지 모르지만 국가로서는 불행이다. 아무런 비전도 없이 그 많은 돈을 푸니 국가의 장래가 잘 될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온 국민에게 다칠 어려움이 더 걱정스럽다. 백성들에게 요행심을 불러 넣어서 어떻게 나라의 장래가 잘 될 것을 믿으란 말인가?

부호장공파, 2021년도 임원진 선임 및 인수 인계



인수 인계를 하기 위해 협의중인 신.구 사무국장.



인수. 인계를 하기 위하여 일원정에 모인 신.구 회장단

부호장공파(副戶長公派)는 코로나19 때문에 정기총회를 순연(順延)하는 대신 회장, 부회장, 감사, 운영위원, 제례위원장, 사무국장 등 임원진을 선임하고 각종 보존문서를 인수. 인계하였다.

2월 6일 오전 11시 안동시 어가골길(태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신. 구 회장단이 참석, 부호장공파 제7대 임원진을 선임하고 친목계절, 정관찰, 도록, 재산대장, 금전출납부 등 21종의 각종 보존문서를 인수. 인계했다. 3년마다 회장단이 바뀌는 정기총회는 코로나19 때문에 정식적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자 부득이 신. 구 회장 등이 참석, 부호장공파의 모든 재산과 종원 회원 명부 등을 인계했다.

제6대 권영건 회장이 만 3년간의 임기를 마치자 제7대 권주연 신입회장이 2021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년 동안 파총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게 된다. 신입 권주연 회장은 안동종친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21년도 부호장공파총회의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권주연(權宙衍) △부회장 권오균(權五鈞), 권정수(權正守) △감사 권오명(權五明), 권태욱(權泰郁) △운영위원 권중용(權重龍), 권영보(權寧步), 권영익(權寧億), 권오상(權五常), 권대수(權大洙), 권오엽(權五燁), 권영문(權寧文), 권태중(權泰鐘), 권기완(權起完), 권오찬(權五燦) △제례위원장 권오중(權五重) △사무국장 권기윤(權奇胤) 등이다. 보도부장 권영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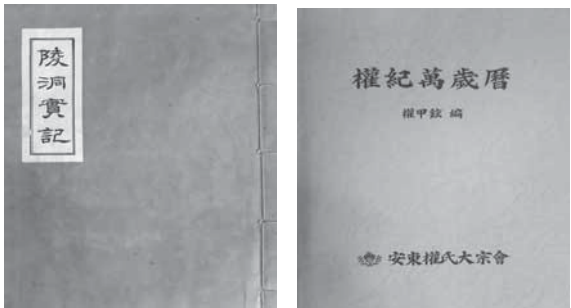
권갑현 종보편집위원장 능동실기 등 고서 대종회에 기증

권갑현 종보편집위원장이 〈능동실기(陵洞實記)〉 책자와 pdf파일을 대종회에 기증했다.

얼마 전에는 시조 태사공이 독성한 930년부터 2100년까지 단기檀紀, 서기西紀, 음력과 양력은 물론 간지가 지 정리된 〈권기權紀 만세력萬歲曆〉을 직접 편집하여 대종회에 보내왔다.

〈권기權紀 만세력萬歲曆〉에는 페이지마다 권기 몇 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외에도 〈능동지陵洞誌〉 pdf 파일과 〈안동권씨 문헌文獻 세덕편世德篇〉pdf 파일 및 〈안동권씨 세덕지世德誌〉pdf 파일 등도 함께 보내왔다. 이 자료들은 “안동 권씨 천백년사”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능동실기

권기만세력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매우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국장 권행완

권정택 상임위원 대종회에 성균관·향교 의례집 기증



성균관 향교 의례집

권정택(權貞澤) 상임위원이 2월 19일 대종회를 방문하여 직접 편집하여 저술한 〈성균관·향교 의례집〉(발행처: 고양향교, 행주서원, 용강서원, 2020)을 기증했다. 서책에는 유교의 성현에서부터 염구(冉求) 등 공문십철(孔門十哲)과 소옹(邵雍), 장제(張載),

주희(朱熹) 등 송조육현(宋朝六賢)을 비롯하여 설총(薛聰), 최치원(崔致遠), 안향(安祥) 등 한국의 심팔현(十八賢)이 수록되어 있고, 문묘에서 공자에게 제사 지내는 의식을 일컫는 석전(釋奠), 문묘 제례악의 전래와 정착하는 과정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권정택 상임위원은 발행사에서 의례를 연구하고 보급하는 일은 문화의 중심인 유교를 계승 발전하고 시대에 걸맞는 가치관을 정립하는 일로 그 의의가 중차대하다고 설명한다.

권정택 상임위원은 성균관 전의(典儀)이기도 하다. 편집국장 권행완

權紀 1100년의 역사책(通史) 발간 사업 안내

대종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권기 1100년의 역사책 발간 사업을 코로나 사태가 진정 되는대로 권웅렬 고문의 비용 전액 후원에 힘입어 발간하고자 합니다. 국가에 큰 공적을 세운 역사적 인물과 안동권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권문의 위상을 드높인 인물들의 사료를 모아 ‘權紀 千百年史’를 집필·발간합니다.

- 안동권씨 100만 족친께서는 일체의 비용은 무료이오니 걱정하시지 마시고 직계조와 방계조의 위대한 업적과 공(功) 등이 벽 속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도록 망치하지 마시고 안동권씨 1100년 역사책에 수록·기록될 수 있도록 다같이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각 파총회와 지역총친회에서는 각 파의 현조님과 지역인물들이 빠짐없이 수록·기록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15개 각 파총회에서는 5월말까지 편집위원 1명씩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기 : 안동권씨 득성(得姓) 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 집필대상
 - －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 3정승 6판서 등 문무관 9품 이상, 청백리, 공신, 과거급제자. 부마(駙馬), 의병, 열사, 정려문이 세워진 충신·효자·효부, 열녀, 내·외명부 등에 들어간 안동권문의 여인 등
 - － 임진왜란·병자호란·일제강점기 때 공신, 의병, 자선가, 독립운동가 등

- 문의 : 전화번호 대종회 사무처 02-2695-2483, 편집국장 권행완 010-6892-5253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2층) 이메일 주소 : andongkwonmun@hanmail.net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해옥